

전주시, 상반기 지방세입 3883억원 확보

특별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숨은 세원 발굴로 재정 기반 강화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활동을 추진한 결과,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7억 원 증가한 3883억 원의 지방세입(시도세, 특별회계 포함)을 확보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액은 총 388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7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2511억 원으로 72억 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1372억 원으로 28억 원 증가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지방세 44억 원과 세외수입 30억 원 등 총 74억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했던 71억2000만 원 대비 103.8%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서, 납부안내문 등 총 17만4000여 건을 발송했다. 또, 시·구청·동 주민센터 간 협업 체계를 구축

해 고액 체납자는 시에서, 소액 체납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전담 관리했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현장 실태 조사를 병행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시는 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취득 재산과 예금 등에 대해 1만679명을 추가 압류했으며, 실익 있는 재산 16건은 공매를 의뢰했다. 동시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재제도 실시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납세 보증을 확보하고, 귀금속과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동산 24점과 현금 180만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15개 영치반을 운영해 변호회 영치를 실시한 결과 460대 차량에 대해 1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예코시티 공공청사 부지매각을 완료함으로써 전년 대비 236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했다. 또, △도로사용료 정상화 △체육시설 이용료 증가 △주차 요금 및 장사 시설 사용료 현실화 정책 등을 통해 전년보다 7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 시는 숨은 세원 발굴 조사단 운영을 통해 탈루세원 추징에도 힘썼다.

앞서 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3개 반 5개 팀, 총 3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과점주주 취득세와 갑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5월 말 기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000만 원을 추징했으며, 갑부 부동산 및 누락 세원 조사로 4억 3000만 원, 과점주주 및 지부면경 조

사로 7억20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12억4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상반기 목표액 1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와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징수율을 1% 높여 약 17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함께 카카오뱅크, 네이버 관계망서비스(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입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지주재원"이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입 확보 전략과 공정한 과세 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6월 30일 'HAPPY RUN 엄마의 간식'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특화교육 제과제빵 과정을 수료한 달콤우리봉사단이 직접 만든 마테라쿠키케이크 400개를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전달했다.

'해피런 엄마의 간식' 재능 나눔

전주지방센터 달콤우리봉사단 만든 간식, 지역아동센터에 전달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진)는 6월 30일 HAPPY RUN 엄마의 간식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특화교육 제과제빵 과정을 수료한 달콤우리봉사단(회장 박순애)이 직접 만든 마테라쿠키케이크 400개를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HAPPY RUN 엄마의 간식'은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시·군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주지역 70개 지역아동센터와 전주시의 결식아동 지원사업인 '엄마의 밥상' 지원 아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전달하며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올해 엄마의 간식 봉사에는 △골목별봉사단(회장 임가현) △덕진구 사랑의올타리(회장 유찬) △달콤

우리봉사단 등 3개 제과제빵 재능봉사단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들렌과 크림치즈쿠키케이크, 르팬쿠기, 머핀 등 다양한 과자를 직접 만들어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날 봉사에 나선 달콤우리봉사단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한 상반기 자원봉사 특화교육 통해 만들어진 신규 재능봉사단으로, 앞으로 활발하고 지속적인 재능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APPY RUN 엄마의 간식' 사업은 오는 9월까지(7~8월 제외) 매주 화·목요일 총 16회에 걸쳐 운영되며,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건강한 간식을 전달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여름철 맞춤형 폭염 대응 추진

전주시 덕진구, 살수차·그늘막·수경시설·무더위쉼터 등 운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가 맞춤형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다.

덕진구는 길어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도로와쉼터 등 공공시설물과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폭염 저감 및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먼저 구는 폭염특보 발효 시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차 6대를 운행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체감온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구는 주요 교차로와 보행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그늘막 200개소를 운영해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서

는 한편, 폭염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과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구는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세병공원 등 공원 내 수경시설 17개소를 날씨·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시설물들에 대해 정기적인 물 교체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물놀이시설의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유생·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경로당 224개

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는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안내포지판 점검을 실시했으며, 무더위쉼터 운영에 앞서 경로당 내 냉방기 점검과 특별방범비 지원 등을 통해 쉼터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구는 앞으로도 폭염이 장기화되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침수우려지역 현장점검 강화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집중호우 대비 기간을 운영하며 도로 배수시설과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구는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수관로 매설과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배수 환경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구는 빗물받이 8000개소와 배수로에 대한 점검 및 준설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로변과 배수취약 구간의 퇴적물 제거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재해 우려 지역 및 지하차도 3개소와 언더패스 10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동시에,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통제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체계에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문화예술기획단 2분기 정기회의 가져

청년의 시선에서 청년들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활동 중인 '전주시 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기획단의 2분기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전주시 청년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희성 기자

이 자리에서 단원들은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청년예술인을 비롯한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전주의 숨은 문화 가치를 알리는 '문화 전도시' 역할을 특별히 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획단원들은 개인 SNS를 활용해 전주의 다양한 축제·공연·전시와 문화시설을 청년의 눈높이에서 소개하며 500건의 홍보 콘텐츠를 생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EU, 국제도시 협력 온라인 세미나 개최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6월 30일 EU(유럽연합)와 함께 국제도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하고, 해외 협력도시들과 전주의 대표 관광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도시가 관광과 디지털 기술, 도시 혁신 분야의 정책과 경험을 나누는 국제도시및지역협력(IJRC)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현재 IJRC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 협력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전주관광재단, 전주시 신성장산업과가 함께 전주의 관광정책을 소개했다.

발표는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전주향교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역사문화

관광정책 △하이лай트 전주(Hi-Light Jonju)와 문화유산 야행, 야시장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옥마을 주변 주차 정보와 관광객 이동 데이터를 분석·관리하는 'AI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한 해외 도시들은 전주가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또, 각 도시별 관광정책과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국제 온라인 세미나를 계기로 오는 9월 17일로 예정된 '2026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 해외 도시들과 관광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관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